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9월 5주~10월 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인프라] Bocimi 유료도로, 1-2구간 운영 · 3구간 공사 · 4구간 토지보상 진행중¹⁾(Bisnis, 9/22)
 - 공공사업부(PU) 산하 유료도로규제기관(BPJT)은 Bogor-Ciawi-Sukabumi (Bocimi) 유료도로가 서부자바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PSN)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을 발표
 - Bocimi 유료도로는 총 4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구간 (Ciawi-Cigombong) 15.35km와 2구간(Cigombong-Cibadak) 11.05km는 이미 운영중임. 3구간(Cibadak-West Sukabumi) 13.7km는 현재 공정률 53.36%로 '25년 3Q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4구간 (West Sukabumi-East Sukabumi) 13.05km는 토지보상 단계로 보상 진행률은 10.37%임
 - BPJT는 Ciawi-Sukabumi 유료도로가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객이 Lido 경제특구, Ciletuh-Palabuhanratu 지질공원, Situ Gunung 등 주요 관광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Jakarta-Sukabumi 이동시간이 평상시 약 5시간, 교통혼잡 시 최대 9시간에서 약 1시간 30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인프라] Serpong-Bogor 유료도로, 32.03km · 749백만불 규모 착공 예정²⁾(Bisnis, 10/3)
 - Serpong-Bogor 유료도로(Parung경유) 프로젝트가 유료도로사업시행사

PT Bogor Infrastelas(BSIS)의 유료도로사업권 계약 공식서명 후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음. 총 투자액은 약 749백만불(12.35tril IDR)로, 기술설계 · 용지보상 · 시공 · 운영 등 모든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공공사업부(PU) 유료도로규제기관장(BPJT) Wilan Oktavia는 해당 유료도로 프로젝트가 총 32.03km로, 4개 주요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
(서부자바州 구간 27.83km, 반뜰州 구간 4.2km로 구분)
 - 1구간: Salabenda-Pondok Udik (3.97km)
 - 2구간: Pondok Udik-Putat Nutung (9.27km)
 - 3구간: Putat Nutung-Rumpin (8.23km)
 - 4구간: Rumpin-Serpong (10.56km)
- PT BSIS는 PT Jasa Marga(JSMR), PT Adhi Karya(ADHI), PT Hutama Karya Infrastruktur, UNTR 자회사 PT Persada Utama Infra로 구성된 컨소시엄임
- [인프라] Serpong-Bogor 유료도로, PPP 방식으로 추진 예정³⁾(Bisnis, 10/8)
 - PT Hutama Karya Infrastruktur 이사 Aji Prasetyanti는 Bogor-Serpong 유료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PPP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도심 밀집 지역 내 공사와 여러 유료도로가 교차하는 Salabenda 구간의 공사가 주요 기술적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
 - Bogor-Serpong 유료도로는 Bogor, Depok, South Tangerang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대체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Jabodetabek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의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는 유료도로망의 일부로 추진중이라고 설명
- [인프라] 식량자급 지원을 위한 811백만불 규모 관개망 개발 착수⁴⁾
(Bisnis, 9/23)
 - 재무부 차관 Suahasil Nazara는 식량자급 지원을 위한 관개망 개발 ·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2/45/1913371/projek-tol-bocimi-dilanjutkan-hingga-sukabumi-timur-begitu-progresnya>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3/45/1917190/resmi-kongsi-jsmr-adhi-untr-bangun-tol-serpong-bogor-ml23-triliun>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8/45/1918458/ik-ikut-garap-tol-bogor-serpong-begitu-skema-pendanaannya>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2/45/1913371/prabowo-mulai-inpres-pembangunan-irigasi-ml36-triliun-until-dukung-swastabada>

개선·복구 및 운영·유지관리 촉진에 관한 ‘25년 대통령지시(Inpres) 제2호의 시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힘

- Suahasil 차관은 배정된 국가예산 총액은 약 811백만불(13.6tril IDR)로, 1단계는 약 59백만불(1tril IDR)이 집행되어 13개 주에서 총 28만ha 규모의 토지 최적화가 포함된다고 설명
- 이어 2단계에는 총 364백만불(6.1tril IDR)이 투입되며, 이에는 지방정부 관할 1·2차 관개망 복구 및 개선(11만3,419ha),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관할 3차 관개망 건설·복구·개선(10만3,816ha), 지하수 관개망 건설 및 복구(8,540ha)가 포함된다고 언급하였으며, 3단계는 현재 정부가 대상지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임

○ [인프라] 북부자바해안관리청·공공사업부, 거대방조제 개발 논의⁵⁾ (Bisnis, 9/25)

- 북부자바해안관리청(BOPPUJ) 청장 Didit Herdiawan Ashaf는 공공사업부(PU)와의 1차 회의에서 거대 방조제(Giant Sea Wall) 개발계획과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북부자바 해안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고 밝힘
- 회의에는 공공사업부 차관 Diana Kusumastuti가 참석, Diana 차관은 거대 방조제 건설이 자바섬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연안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협력적이고 시너지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
-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유엔 총회연설에서 거대 방조제 건설 규모가 약 800억불(1,338tril IDR)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 [플랜트] Geo Dipa, Dieng 지열 프로젝트 EPC·ORC 계약 체결⁶⁾ (Thinkgeoenergy, 9/29)

- 국영 지열 개발·운영사 PT Geo Dipa Energi는 인니 국제지열

컨벤션·전시회(IIGCE)에서 중부자바 Dieng 지열발전 프로젝트 관련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첫째, Dieng 2호기 55MW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한 EPC 낙찰통지서(NOA)를 PT Rekayasa Engineering과 PT Timas Suplindo로 구성된 조인트벤처에 부여. 둘째, National Energy Services Reuntied Corp, Indonesia와 MOU를 체결해 Dieng 지열 염수 폐열을 활용한 유기랭킨사이클(ORC) 발전기술 도입을 추진
- Geo Dipa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금융 지원을 받아 Dieng·Patuha 지열지대에서 발전용량 확장을 추진중이며, Dieng 2호기·Patuha 2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는 ‘2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 또한 올해 초 총 18개 유정에 대한 확장공사의 유정시험이 완료되었다고 발표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현지기업] 산업단지협회, 관료·기술적 문제로 투자자 이탈 우려 표명⁷⁾ (Bisnis, 9/22)

- 산업단지협회(HKI, Himpunan Kawasan Industri) 회장 Akhmad Ma' ruf Maulana는 산업단지내 상당한 투자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복적인 관료적·기술적 문제가 투자비용과 소요시간을 늘리고 이미 투자한 기업에 피해를 주어 투자자 불만을 초래한다고 설명. 이로 인해 투자가 취소되거나 경쟁국으로 이전될 수 있어, 투자TF가 이를 즉시 개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 HKI는 인니 투자 환경에서의 주요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정 미흡으로 사업 허가, 공간 계획 승인, 환경 인허가가 지연되는 점 ▲규제 불확실성으로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과 지연된 시행이 투자위험을 높이는 점 ▲토지 문제로 산업단지 지정 토지가 지속가능한 농지(KP2B/LP2B) 또는 보호 논(LSD)과 겹치고 지방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점 ▲산업단지 외부 기반시설 개발 지연으로 물류 접근, 전력·가스 공급 및 기타 지원 시설 구축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925/45/1914621/cicrita-pantura-kementerian-pu-agar-sinkronisasi-giant-sea-wall>

6) <https://www.thinkgeoenergy.com/geo-dipa-signs-epc-and-power-plant-supply-contracts-for-dieng-geothermal-project-indonesia/>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922/47/1913664/hki-waswas-investor-batal-tanam-modal-inbas-hambatan-birokrasi>

투자TF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한편, ‘25년 상반기 투자실적은 약 565억불(942tril IDR)에 달해 전년 대비 13.6% 증가했으며, ‘25년 국가예산 목표를 달성. 이는 연간 목표 약 1,142억불(1,905tril IDR)의 49.5%에 해당

○ [현지기업] Pertamina, 다운스트림 사업 통합 위한 자회사 합병
금년 말 목표⁸⁾(Cnbc, 10/7)

- PT Pertamina 사장 Simon Aloysius Mantiri는 다운스트림 사업 통합을 위해 자회사 3곳 Patra Niaga, Kilang Pertamina Internasional, Pertamina International Shipping을 ‘25년 12월까지 합병완료로 목표로 한다고 밝힘. 합병 절차는 국부펀드 Danantara의 지침에 따라 추진중임
- Simon 사장은 Pertamina는 항공 자회사인 Pelita Air를 국영 항공사 Garuda Indonesia에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

○ [일종합상사] 이토추, 일본내 암모니아병커링허브 구축 추진⁹⁾
(Offshore energy, 9/25)

- 이토추상사는 소재기술사 TORAY Industries 및 탱커선사 Uyeno Transtech와 일본내 암모니아병커링허브 구축을 위한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를 계기로 해운업계-연료업계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내 암모니아병커링허브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
- 각 사는 암모니아 병커링의 안전한 운영과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검토·확인하고, 일본 당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상업적 조건을 검토할 예정
- 한편, 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토추는 올해 6월 일본에서 암모니아병커링선박을 신규 발주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암모니아

병커링을 실증한 이후 싱가포르에서 암모니아병커링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외기업] ¹⁰⁾Oracle Corporation, 디지털 분야 투자 계획¹⁰⁾(Tempo, 9/22)

- 국부펀드 Danantara CEO Rosan Roeslani는 미국 글로벌 기술기업 Oracle Corporation이 인니에 투자하고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주권 강화, 공공·민간 효율성 제고, 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디지털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설명
- 경제조정부 장관 Airlangga Hartarto는 지난 7월 양국간 무역협력 차원의 개인정보 미국 이전계획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Oracle이 인니에서 이미 운영 중인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중 하나라고 설명. 또한 현재까지 12개의 미국 기업이 인니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했으며, 일부는 코로케이션 단계에 있다고 설명. 골카르당 정치인은 Oracle이 Batam에서 말레이시아 Johor에 있는 기존 데이터센터 시설을 확장·이전할 계획이며, 투자규모는 최대 60억불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힘

○ [해외기업] ¹¹⁾국제신탁투자공사, 거대 방조제 건설 투자협력 논의¹¹⁾
(Bisnis, 9/27)

- 북부자바해안관리청(BOPUJ) 청장 Didit Herdiawan Ashaf는 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CITIC)와 거대 방조제(Giant Sea Wall) 건설 투자협력 기회를 모색했으며, 국제협력력을 통한 이번 개발이 해안 회복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경제력 제고와 향후 블루이코노미 발전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거대 방조제는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국가예산만으로는 건설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정부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 또한 상호이익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투자를

8)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5100720259-4-63773/tos-pertamina-sbut-merger-3-anak-usaha-rampung-akhir-desember-2025>

9) <https://www.offshore-energy.biz/itochu-sets-sights-on-establishing-ammonia-bunkering-hub-in-japan/>

10) <https://www.tempo.co/ekonomi/tos-danantara-oracle-berencana-berinvestasi-di-ri-202252>

1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927/45/1915281/proyek-giant-sea-wall-dilirik-investor-china-iri-bocorannya>

유치할 수 있는 창의적 금융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해외정부] ^러산업부, 신수도내 원자력발전·철도 협력 논의¹²⁾
(Detikfinance, 9/18)

- 산업부 장관 Faisol Rizal은 중국 샤먼에서 열린 2025 BRICS 신산업혁명파트너십(PartNIR) 포럼에서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Aleksei Vladimirovich Gruzdev와 회담을 갖고, 조선산업을 포함한 다수의 MOU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힘
- Faisol 장관은 원자력발전소, 철도망, 산업용가스생산 등 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과 러시아의 비료 공급 확대에 따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니의 식량안보 강화와 국내 농업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강조
- Faisol 장관은 ‘26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INNOPROM에서 파트너국가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첨단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향적 산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산업전환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

○ [해외정부] 주인니덴마크대사, Aceh지역 재생에너지·천연자원개발 협력방안 모색¹³⁾(Antara, 9/30)

- 인니최서단지역 Aceh 부지사 Fadhullah는 자카르타에서 주인니덴마크대사 Sten Frimodt Nielsen과 재생에너지·천연자원개발에 대한 잠재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Aceh 부지사 Fadhullah는 Aceh가 보유한 석유·가스·구리·금·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강조하고, Gayo 아라비카커피·로부스타원두·파출리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농산품도 홍보했다고 설명. 또한 Aceh 분쟁시기와 ‘05년 쓰나미 이후 인니를 지원한 덴마크 포함 유럽국가들에 감사를 표명

- 덴마크대사 Sten Frimodt Nielsen은 Aceh 방문의사를 밝히며,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와 협력하는 덴마크 전문가단을 파견해 해당 지역의 잠재력을 평가할 것이며, 이번 평가가 향후 Aceh와 덴마크 간 다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

○ [해외정부] ^스파르멜랭 부통령,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의지 표명¹⁴⁾(Bisnis, 10/3)

- 스위스 연방의회 의원이자 부통령 Guy Parmelin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니-스위스 인프라 컨퍼런스 2025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 이번 방문에는 운송·전력기술·산업기술 관련 스위스 기업 대표단도 동행
- Parmelin 부통령은 인니-스위스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1년 11월부터 발효되면서 양국 경제관계 강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50개 이상의 스위스 기업이 인프라·기계·산업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니에 진출해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고용기회 창출 및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
- Parmelin 부통령은 양국의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잠재력이 크며, Team Switzerland Infrastructure가 양국 산업협회·수출기관·컨설팅 주요 파트너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 [해외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스경제사무국과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육성 MOU 체결¹⁵⁾(ESDM, 10/2)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인적자원개발국(BPSDM)과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간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육성 관련 MOU를 체결. 이번 협력은 직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신재생에너지 자원활용 장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
-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 Yuliot는 인니의 3,687GW 규모의 잠재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스위스와의

12) <https://finance.detik.com/infrastruktur/4-8118030/ri-rusia-bahas-potensi-kerja-sama-perbangkit-nuklir-kereta-di-dilon>

13) <https://en.antaranews.com/news/333265/aceh-deputy-governor-seeks-energy-ties-with-denmark>

1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03/12/1917146/swiss-perkuat-kerja-sama-infrastruktur-dan-energi-bersih-dengan-indonesia>

15) <https://www.esdm.go.id/en/media-center/news-archives/optimalkan-sumber-energi-ebt-indonesia-lanjutkan-kerja-sama-dengan-swiss>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EAER) 부사장 Guy Parmelin은 양국이 제조업 교육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기술경쟁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BPSDM 국장 Prahoru Yulijanto Nurtjahyo는 이번 협력이 기존 재생에너지 기술개발(RESO) 프로그램의 연속이라고 밝힘. 차관 Yuliot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교육센터(PPSDM KEBTKE)를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

3. 정부 정책동향

○ 재무부, Danantara 국내 투자 기여도 확대 필요성 강조¹⁶⁾(Bisins, 9/23)

- 재무부 장관 Purabaya Yudhi Sadewa는 국부펀드 Danantara의 국내투자 기여도가 여전히 낮으며, 향후 투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재무부는 ‘26년 국내총투자가 약 4,464억불(7,450tril IDR)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민간부문이 약 3,716억불(6,200tril IDR), Danantara가 약 431억불(720tril IDR), 정부가 약 317억불(530tril IDR)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 Danantara의 기여도는 전체투자 대비 9.66%에 불과하다고 설명
- 재무부는 연간 투자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Danantara의 투자규모는 ‘27년 약 431억불(720tril IDR)에서 ‘29년 약 587억불(980tril IDR)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다만, ‘29년에도 민간부문이 약 4,975억불(8,300tril IDR)로 전체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Danantara의 비중은 9.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이는 ‘26년 9.66% 대비 0.14%p 증가에 그친 수치임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 해양·항공 인프라 개발 병행 강조¹⁷⁾(Bisins, 9/23)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인니가 두 대륙과 두 대양 사이에 위치하고 1만7천개 섬을 가진 군도국가로서, 인프라 개발과 국가물류 발전에 자금조달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도전과제가 존재한다고 설명
- AHY 장관은 해안선과 섬들로 인한 제약으로 육상 교통망 확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해양·항공 부문 개발을 병행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이 인니를 경제·정치적으로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가 핵심이라고 설명. 아울러 정부는 연말까지 기존 인프라 프로젝트 마무리에 집중하되, 식량자급을 지원하는 관개·댐 건설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파이낸셜 타임스, 프라보워 정권에 대한 혹독한 비판^(Financial Times, 9/25)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니 시위를 경제난 단면으로 지적하며 이는 동남아 전역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 동남아는 ‘10년대 신흥국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1년간 최악의 성과, 글로벌 제조업체의 중국 외 이전에도 제한적인 투자유입, 중국발 수출품 공세로 자국시장 방어가 어렵다고 설명
- 이에 베트남은 민간투자 확대·국영기업 개혁으로 대응, 말레이시아는 데이터센터에서 성과를 얻었으나, 태국은 정치혼란으로 제조업 기반 상실, 인니는 제조업 약화·노동자 농촌회귀·소비위축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보다 농촌협동조합 등 복지프로그램에 치중하여 탈산업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성장률 8% 공약이 비현실적이고 GDP 성장률 5.12%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힘
- 동남아 근본 문제는 제조업 자동화로 인한 고용감소와 수출 제조업 고도화 부족으로 지난 10년간 정체된 생산성임. 일부 국가는 무역항과 숙련인력으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나 다수 국가는 산업다각화와 개혁이 필요하며, 인니가 현실을 외면할 경우 경제위기 심화가 우려됨

16) <https://market.bisins.com/read/20250923/192/1913759/renkeu-purbaya-sebut-investasi-danantara-keci-masih-malu-malu>

17) <https://ekonomi.bisins.com/read/20250923/45/1914010/ahy-kondisi-geografis-tantangan-pembangunan-infrastruktur-ni-bubuh-maritim>

○ **적백마을협동조합 954백만불 규모 예산 배정, 부실위험 우려**
(Kocham, 9/22)

- 재무부 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25년 국가잉여예산 약 954백만불 (16tril IDR)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를 목표로 적백마을협동조합 지원자금으로 공식 배정했다고 밝힘. 해당 예산은 비영구적 정부투자 형태로 BRI · BNI · Mandiri · BSI 등 국영은행협회 은행 계좌에 예치되며, 마을협동조합에 연6% 금리, 최장6년 상환, 6~8개월 거치기간 등의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될 예정
- 정부는 은행이 수혜협동조합 실사를 의무 수행하도록 하여 신용공급을 관리하여, 예치금이 은행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 그러나 Paramadina University 경제학자 Wijayanto Samirin은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재무기록과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는 신생조직이며 추가자본과 엄격한 감독 없이는 2~3년내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또한 낙후지역개발부(Kemendes PDT)는 상환실패 시 마을 기금에서 충당한다고 밝혀, 사실상 구제금융 성격으로 재정부담 우려가 제기됨
- 이번 자금지원은 「적백마을협동조합 설립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제9호(2025)」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재무부장관령 제63호(2025)」에 명시돼 지난 9.1부터 발효됨

○ **PLN 전력수출입 총괄, 민간사업자 참여 제약 우려**¹⁸⁾(Bisnis, 9/25)

- 국가에너지정책(KEN)에 따라 국영 전력회사 PT PLN이 국가간 전력 수출입을 총괄하게 됨. 「제40호 정부령(2025)」은 전력 수출입을 중앙정부 권한으로 규정하고, PLN 또는 지정 사업자가 담당하도록 명시
- 에너지 · 광업법률 연구센터 센터장 Bisman Bakhtiar는 전력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핵심부문이므로 국가통제가 타당하며, 이번 조치가 에너지주권 유지와 단일창구를 통한 전력조달 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 다만 민간전력사업자와 IPP 투자자의 활동이 제약되고 PLN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전력수출입은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와 교환하는 스와프거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수입은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활용됨

○ **‘25년 인프라개발 예산집행 지연에 따른 국영건설사 실적 부진**¹⁹⁾
(Bisnis, 9/29)

- 프라보워 대통령 임기초 대규모 인프라개발 부재와 더딘 예산집행이 국영건설사의 매출부진으로 이어짐. 재무부 차관 Suahasil Nazara는 ‘25년 인프라개발 예산집행이 약 85억불(142.1tril IDR)로, 전체 약 241억불(402.4tril IDR) 대비 35.32%에 그쳤다고 설명
- 국영건설사 ‘25년도 상반기 매출은 PT Waskita Karya 약 186백만불 (3.1tril IDR)로 전년 대비 30.63% 감소, PT Wijaya Karya 약 351백만불 (5.85tril IDR)로 22.5% 감소, PT Adhi Karya는 약 228백만불(3.8tril IDR)로 32.89% 감소, PT PP는 약 422백만불(6.7tril IDR)로 23.71% 감소
- Next Indonesia Center 연구원 Herry Gunawan는 인프라건설 주관 부처 공공사업부의 ‘26년 약 71억불(118.5tril IDR) 예산배정으로 국영건설사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 또한 Paramadina University 교수 Wijayanto Samirin는 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약 119억불(200tril IDR)에 달하는 부실 부채로 재무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어 국부펀드 Danantara의 주주 대여금, 구조조정 등 개입 필요성 강조

○ **‘29년까지 에너지 자급률 80% 달성 목표**²⁰⁾(Antara, 10/7)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halil Lahadalia는 ‘29년까지 에너지 자급률 목표 8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석유 · 가스

1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925/44/1914774/ekspor-listrik-lewat-pln-peringkat-ingatikan-ruang-swasta-bisa-terbatas>

1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929/45/1915497/milik-kineja-bum-karya-di-tengah-minimya-proyek-infrastruktur>

20) <https://enantaranews.com/news/38476/indonesia-eyes-80-percent-energy-independence-by-2029>

생산량 확대, 에너지원의 최적 활용안 모색, 국가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국영기업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예를 들어, 외국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한 국영전력공사 PLN의 80~100GW 태양광 패널 건설, 디젤 수입 감소를 위한 B40 바이오디젤 (바이오연료40%·화석디젤60% 혼합) 사용 의무화로 ‘26년까지 혼합 비율 45~50%로 상향. 또한 E10(휘발유에 에탄올10% 혼합) 도입을 검토해 연료수입을 줄이고 보다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연료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
- 국영 석유·가스회사 Pertamina 사장 Simon Aliyusius Mantiri는 정부의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과 Pertamina의 이니셔티브가 일치하며, 이미 E5(에탄올5%)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그램 실행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RUPTL 기간 동안 1,799억불 규모의 투자기회 강조**²¹⁾(Tempo, 10/7)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Bahlil Lahadalia는 ‘25~ ‘34년 전력공급사업계획 (RUPTL) 기간 동안 약 1,799억불(2,967tril IDR) 규모의 투자가 3개의 분야로 나뉜다고 밝힘. 발전 부문 약 1,293억불 (2,133tril IDR), 송배전망 개발 약 341억불(563.3tril IDR), 기타 지원분야 약 162억불(268.4tril IDR) 배정
- Bahlil 장관은 발전 부문 투자 중 약 73%가 IPP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PLN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강조
- 국영전력공사(PLN) 신재생에너지 국장 Suroso Isnadar는 인니 재생에너지원의 총 잠재 용량은 3,686GW에 달하지만 9.4GW만 활용하고 있으며, PLN 전력공급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66%, 가스화력발전소가 17%를 차지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

4. 녹색산업 동향

○ **산림부, 바이오매스에너지용 산업조림 개발로 2030 FOLU Net Sink 목표 추진**²²⁾(Antara, 9/18)

- 산림부 산림제품인증·마케터 및 서브디렉터 Tony Rianto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위한 산업조림 개발은 산림파괴를 초래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황폐지 복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힘. 또한 임업분야에서 탄소흡수량이 배출량을 초과하는 2030 FOLU Net Sink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덧붙임 (Forestry and Other Land Use)
- Rianto 서브디렉터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바이오매스에너지용 산업조림의 생태·사회·경제적 기능을 유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 또한 정부는 산업조림 개발이 고용창출, 지역투자, 국내에너지원 다변화, 목재 펄프 수출경쟁력 강화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청정에너지 확대와 산림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Danantara, 폐기물-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국가조정회의 개최**²³⁾(Cnbc, 9/30)

- 국무펀드 Danantara는 폐기물-에너지 전환 처리에 관한 국가조정회의를 개최. 이번 회의의 목적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략적 파트너간 협력을 강화해 폐기물-전력 전환을 통한 국가폐기물관리의 해결책, 도전과제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임
- 회의에는 Danantara CEO Rosan Roeslani, COO Donny Oskaria, CIO Pandu Sjahrir, 내무부 장관 Tito Karnavian이 참석했으며, 내무부·환경부·지방정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도 동석. 또한 PT PLN도 논의 당사자로 함께 함

21) <https://en.tempo.co/read/2025219/indonesia-uses-only-9-4-gw-of-its-3686-gw-renewable-energy-potential>

22) <https://en.antaraneews.com/news/380837/indonesia-backs-timber-plantations-for-renewable-energy-minister>

23) <https://www.cnbcindonesia.com/market/20250930091639-17-671373/danantara-adakan-rapat-bahas-proyek-sampah-jadi-energi>

○ WTE 프로젝트, 핵심지역 선정 및 Danantara 사업참여자 입찰 예정²⁴⁾
(Antara, 10/2)

- 식량조정부 장관이자 식량·에너지·폐기물자립가속화 위원장 Zulfikri Hasan은 폐기물 에너지화(WTE) 프로젝트 개발 추진을 위한 핵심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힘
- 선정된 9곳의 지역은 DKI Jakarta, Bali, Yogyakarta, Bekasi, Greater Bogor, Tangerang, Semarang, Medan, West Java(내 포함 지역: Bandung City, Cimahi City, West Bandung District, Sumedang District, Garut District)로 구성됨
- Danantara CEO Rosan Roeslani는 약 30억불(50tril IDR) 규모의 애국채권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WTE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 파트너 선정 위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 그룹계열사) – 한투그룹 조성·운용 펀드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LG CNS MEP(장비설치) 계약, 현지업체(Acset)와 시공계약 체결완료, 본사 투자의결('25.9.4) 및 이사회회의결('25.9.15) 완료
- (25년 센터목표) 본사 투자의결 (달성)

○ (주요동향) 선행조건 달성 추진 및 KIND 투자금 납입 준비

② BSD 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료 – Termsheet 체결 및 최종 FS 수행 필요
- (25년 센터목표) DD 및 최종 FS 수행, '26.1Q 투자심의 부의 준비

○ (주요동향) KIND 자금지원FS 협약체결 추진, 용역 착수준비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25.5~7월 NDA 체결 및 수방산단 사업 Pre-FS 수행 / GS건설 내부 사전사업심의 통과('25.10.1)
- (25년 센터목표) Deal Pipeline 등재 / 사전검토위 또는 사업선정위 통과, 개발참여

24) <https://en.antaranews.com/news/33301/indonesia-targets-10-key-regions-for-waste-to-energy-projects>

○ (주요동향) GS건설 내부 사전사업심의 통과, DD 예산 확보 完

④ 자카르타 MRT 4호선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 여 사)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플레너리 아시아(MOU 체결후 협의중)
- (사 업 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요청('25.7.8) - 플레너리 협력 협의중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획득 / 플레너리 참여 확정 및 FS업데이트

○ (주요동향) 자카르타 주정부 기한연장 승인 完 (9.25)

⑤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신수도 공무원주택 도급공사 실적보유 건설공기업)
- (사 업 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공무원주택(아파트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체결,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25.9 삼성물산 기용 컨설턴트 OIKN 질의 대응중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획득 / 사업주 구성 확정 및 FS업데이트

○ (주요동향) 삼성물산 기용 현지컨설턴트, 신수도청과 정기협의 진행중

- 현지컨설턴트 계약이 소규모 계약으로 단독대응에 한계가 있는바, 삼성물산 본사 내부검토 통해 추가적 리소스 투입여부 결정예정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수도이전 / 신수도(누산타라) 건립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 업 비) 466조 Rp (원화 약 40조원)
- (사업내용)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난개발, 교통체증, 기반침하 등의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칼리만탄섬 동부지역의 발릭파판과 사마린다 사이에 도시를 신설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
- (추진현황) 재정사업 위주 1단계(2022~2024) 마무리중, 2단계 사업 '25.8월중 입찰공고 예정

○ (주요동향) 신수도 건립은 부정적 여론·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기·대형사업으로, 사업기획 지속 모색 필요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신수도 행정 이전 지속, '28년까지 공무원 4,100명 이전 추진²⁵⁾(Bisnis, 9/19)

· 프라보워 대통령은 '28년 신수도(IKN)를 정치적 수도로 구현하기 위해 약 4,100명의 국가공무원(ASN)을 이전할 예정이며, 이는 '25년 6월 말 서명한 「정부업무계획 갱신에 관한 대통령령 제 79호(2025)」에 명시된 내용임. 신수도에서의 정부 이전과 행정 구현은 1,700~4,100명의 ASN 전환·배치를 통해 반영되며, 정부는 서비스 커버리지가 25%에 이르는 스마트시티 기반 신수도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신수도청(OIKN) 청장 Basuki Haidmuljono는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신수도로 ASN 이전을 지속할 것이며, 국가행정혁신부가 15개 부처 및 기관에서 ASN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 또한 현재까지 신수도 소속 ASN 1,170명이 공식적으로 신수도로 이전하여 공공사업부(PU)가 건설한 공무원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

2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919/45/1912922/siap-siap-prabowo-bakal-pindahkan-1700-4100-asn-ke-ikn-jelang-2028>

- 신수도 국가공무원 이전, 주거시설 완공 44개·마무리 3개·건설중 4개²⁶⁾
(Antara, 9/29)

- 신수도청(OIKN)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정부업무계획 갱신에 관한 대통령령 제79호(2025)」에 따라 1,700~4,100명의 국가공무원(ASN)이 단계적으로 신수도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29년까지 ASN 9,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
- ‘25년 9월 기준, ASN 이전 지원을 위해 아파트형 주거타워 44개가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하며, 3개는 마무리단계, 4개는 건설중임
- 1단계(‘22~‘24년)로 대통령궁, 정부청사, ASN·장관 관사, 병원, 호텔, 공항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민간투자가 이를 지원. 2단계(‘25~‘28년)는 ASN 이전, 입법·사법 건물 건설, 연결인프라 구축, 녹지조성, Sepaku 지역개발과 교육투자에 중점을 둠

- 신수도 본격 운영, ‘28년 프라보워 대통령 임기 후반부 전망²⁷⁾
(Bisnis, 9/20)

- 금년 신수도(IKN)의 향후 추진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신수도의 본격적인 운영은 향후 3년 뒤인 프라보워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프라보워 대통령은 신수도를 정치적 수도로 지정하고 ‘28년 운영개시를 목표로 함. 이는 「정부업무계획 갱신에 관한 대통령령 제79호(2025)」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수도 계획·개발 및 이전은 ‘28년 정치수도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규정
- 주요 개발 방향은 약 800~850ha 규모의 중앙정부핵심구역(KIPP) 개발을 우선 추진, 신수도내 건축물 및 사무실 개발을 전체 가용 부지의 20%로 제한, 적정·저렴·지속가능한 주택개발을 전체 가용부지의 50% 수준으로 조성, 기초 인프라 시설 보급

률을 50%까지 확대, 접근성 및 연결성 지수를 0.74로 설정

- 신수도 1·2단계 개발 가속화 및 민간투자 39억불 규모 유입²⁸⁾
(Bisnis, 9/28)

- 신수도청(OIKN)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다년도계약(MYC) 1단계 사업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MYC 1단계에 포함된 주요사업은 부통령궁, 주립모스크, 발릭파판-신수도 연결 고속도로 등이 있다고 설명
- 신수도청은 올해부터 ‘28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개발을 중점 추진중이며, 주요사업은 공무원 이전을 위한 기반시설 준비, 입법·사법 기관 건설,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임. 또한 녹지인프라 개발, Sepaku 지역 정비, 교육 부문 투자도 추진할 계획
- Basuki 청장은 신수도 개발이 국가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투자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25년 9월 기준 민간투자는 약 39억불(65.3tril IDR) 규모로, 해당 투자금이 국내외 49개 기업(52개 협력협정)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고 강조

- 신수도 특별자치정부 설립 추진중²⁹⁾(Bisnis, 10/9)

- Basuki 청장은 ‘28년 신수도가 정치 수도로 지정되기 전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특별자치정부 (Pemdasus) 형태로의 전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 현재 신수도청은 JSLG(Jimly School of Law and Government)와 협력하여 제도적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특별자치정부 구조 이해와 행정체계 전환에 대한 통찰력 제고를 도모할 예정

② Batam 항나뎀 공항 확장

26) <https://jatimantaranews.com/berita/981453/ikn-siap-sambut-kepindahan-4100-asn-secara-bertahap>

2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920/45/1913043/kala-prabowo-gantung-nasib-ikn-hingga-jelang-akhir-masa-jabatan>

2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928/45/1915391/dorita-kebut-proyek-infrastruktur-ikn-jelang-jadi-ibu-kota-di-2028>

2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09/45/1918796/jadi-ibu-kota-politik-2028-pemerintah-godok-pembentukan-pemdasus-ikn>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바탐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T2 신설 재원조달 상황 점검하여 KIND 참여가능성 타진 예정

2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9월 5주~10월 2주)
 - 네트워킹 2건 : PERE 컨퍼런스, 다올자산운용·PEI그룹
 - 사업개발 11건 : KIND본사, IFC 인도네시아, STX·KAI, LG CNS, 플레너리·삼성물산·철도공단, GS건설, KIND본사·국정원, 수자원공사, PT BPI, 도화, Sembcorp·KIND본사
 - 대관업무 1건 ; 국토교통부